‘돈세탁, 땅 세탁’

(열왕기하 21:10~24)

10.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4.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15.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돈세탁, 땅 세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돈세탁, 땅 세탁’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돈세탁의 의미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말입니다.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뇌물 등에 관련된 정당하지 못한 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하여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돈을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돈세탁이라는 단어를 패러디해서 땅 세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보았더니 문자 그대로 땅을 세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서울시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발사업 자체가 지금은 무산되어 버렸는데, 당시에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부지가 철도차량사업소였고 기름과 물류창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에 기차를 정비하고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온갖 중금속과 폐기물들이 땅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 맹독성 물질로 오염된 땅을 정화작업 없이는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이 15톤 덤프트럭으로 8만 3천 번을 퍼 날라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10m 깊이의

땅을 파서 다 세척을 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강력한 수압으로 물 세척을 하고 자석을 통하여 금속을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과 염산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서 땅 속에 있는 중금속을 다 녹입니다. 이렇게 땅을 세탁하는 비용이 2,9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30~40층짜리 건물을 하나 세울 수도 있는 비용 때문에 결국은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의 땅 세탁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세탁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선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BC722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망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므낫세의 악정과 관련되어 BC586년에는 남 왕국 유다도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확정된 경고가 주어집니다.
결국 복지가 상실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땅을 세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의 삶이 늘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전쟁에 시달리고 가뭄이 있고 날마다 괴로움뿐이었는데 약속에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이방족속의 우상숭배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얼룩진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땅 세탁을 통하여 복지로 만들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산 국제 업무 개발부지로 선정되었던 땅이 철도차량기지였기 때문에 폐기물과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서 땅을 세척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의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땅을 땅 세탁을 통하여 복지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세탁이 불법자금을 합법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처럼, 이 땅 세탁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에덴이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으므로 에덴 밖은 모두 불법적인 땅입니다.
그 불법적인 땅에서 복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세탁을 하듯이 그 불법적인 땅을 합법적인 것으로 세탁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세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선민을 정하시면서 선민들에게 에덴 밖의 불법적인 땅을 합법적으로 바꾸어서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세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골라 세우고 이렇게 땅 세탁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복지로 만드는 땅 세탁에 실패하여 복지와 약속의 땅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어떠하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웠든 못 배

웠든 출신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놓인 삶의 현장인 땅을 세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지는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므낫세가 무서운 악의 영성을 가졌다는 것을 히스기야와 비교함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영성은 앗수르의 2차 침공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침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삶의 현장에서 유지시켜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히스기야의 영성이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의 영성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가치를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로 붙잡고 그 상태를 성전 안까지 밀고 들어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번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사로 모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 이외의 관심사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성은 성전을 생활화하는 영성이었고, 반대로 므낫세의 영성은 성전을 활성화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이 나쁠까요? 삶의 현장에서 살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성전 안에서조차도 삶의 현장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므낫세의 악행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기록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일월성신의 우상들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제단 바깥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금 성전 뜰 안에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의 활성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확정적인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릇을 씻어 엎어버리듯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상실과 약속의 땅 상실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특징이 있는데 성전과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므낫세가 성전을 활성화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치워버리십니다. 이미 므낫세의 성전 활성화 작업으로 통해서 성전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렸고 이어서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성전의 존재 의미를 제거하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물을 없애버리시고 이어서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의 상실이 일어나는 원인은 성전의 상실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7족속의 우상숭배의 더러움으로 찌든 땅이었는데, 이 땅을 세탁하여 복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가 상실된다면 이 더러운 땅을 복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고, 므낫세의 성전 활성화가 어떻게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성전 바깥에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가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지성소에 풍요와 다산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내 손으로 풍요와 다산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도 풍요와 다산을 추구함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성전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던 우상숭배자들은 멀리 있는 바알의 제단을 찾아 떠나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든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문이 닳을 정도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성전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로서 성전의 의미는 사라져버렸는데 성전의 의미는 활성화가 아닌 생활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생활화는 직장에 나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내 마음에 그대로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료들은 마음의 지성소에 승진 성과 업적 사장님께 잘 보이기 월급액수 올라가는 것 등을 담고 있지만 나는 성전을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있었는데 생각하고 판단하시며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하게 됩니다. 남들이 승진을 추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데 떡상의 의미가 재현되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일이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나면 등대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주어지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살이를 할 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생활화함으로 성전을 낙하지점으로 해서 흘러 들어온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번져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 대신에 마음의 지성소에 땅에서 붙잡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함께 땅의 것을 추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도 가능하므로 성전은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본래 존재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상숭배로 얼룩진 이 땅을 세탁할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세탁합니까?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야 세탁이 됩니다. 하늘이 기운이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전의 모습을 내 마음에서 구현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당 바깥의 가정에서 아버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삶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버지 학교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영성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그때까진 비어있던 예배당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모이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 첫 번째 현실이 되도록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예배당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마음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지성소를 성전의 모양으로 갖추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2차 침공 때 하나님이 더 우선적 현실이었던 것처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자녀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 위해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하는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앞에 두고 있지만 자식과는 무관하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떡상의 의미가 실현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상태에서 자녀를 보면 등대의 의미가 실현되면서 그 자식을 향해서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나를 장갑 삼으시는데 이것이 성전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같은 강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교회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므낫세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임으로 교회는 활성화되고 교인들은 넘쳐날 수도 있으나 이미 교회는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직장을 다니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들어오면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식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알려주면서 깜짝 놀라게 해야 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병 고치겠다고 찾아올지라도 우선은 몸이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로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라이브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삶의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적 복음적 아버지가 되는 길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자식을 대하는 원리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입니까? 목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약속의 땅처럼 완전히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신념체계와 가치기준들이 복지를 없애버립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체계 신념체계가 곧 믿음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서 복지를 빼앗아갑니다. 복지를 빼앗기면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없고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이렇듯 내 삶의 현장은 에덴 바깥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가치기준과 신념체계로 물들어버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신념체계 때문에 걱정하며 삽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를 패배자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은 패배자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사랑받아 장관이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들 할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하다가 대통령 마음에 들어서 법무부장관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사람들에게 실패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 못 벌면 실패자로 보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면 2등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며 복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을 성전으로 세탁해야만 합니다. 성전의 모양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지성소가 자꾸 돈이 있어야 된다는 신념체계에 끌려가면서 돈을 원합니다. 무병장수를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믿음체계에 끌려가면서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불안해서 벌벌 떱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세탁해 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인데,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배 부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감사가 나올 때에 복지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등대의 의미가 실현됩니다. 내가 하늘로 배부른 상태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뜻을 밝혀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던 마음상태 그대로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의 존재 의미를 말살시키는 므낫세의 영성을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본래적 교회의 의미는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짜 선민들이 다시금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므낫세의 영성을 통해서 교회는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지고 교회라는 허울만 남은 것입니다. 성전의 활성화는 성전을 없애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얻은 마음을 생활의 현장에서 지속시켜 나갈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에덴 밖에서 이루어진 타락의 땅이 세탁되어 질 수 있고 에덴으로 복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땅을 세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 성전의 생활화를 통하여 땅을 세탁하여 복지를 누리게 하옵시며, 므낫세의 영성을 뒤따르는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바른 깨달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